

남원시, 내년도 국가예산 1조5656억원

전년 대비 147억원 증액... 핵심 중점사업 집중 반영

남원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전에서 국비 1,802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이는 남원시가 중점확보 대상사업으로 관리해 온 186개 사업의 2026년도 국비 확보액으로,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한 실적이며, 총사업비 1조 5,656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간혹을 통한 효율화와 성장을 위한 투자가 병행되는 예산 편성 기조속에서 남원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핵심 중점사업을 집중적으로 반영시키며 '선택과 집중'의 전략의 성과를 분명히 드러냈다.

또한, 남원시는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2025년도에만 68개 사업에 선정되어, 총 1,63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누적 기준으로 307개 사업, 7,743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남원 경향수련원 건립(442.3억원)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161억원) △AI 기반 차세대 엑스층 기술 및 표준화 개발(400억원)이 있으며, 계속사업으로는 △도자전시관(170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 인프라 확충과 청년 인구 유입, 첨단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등 지역 성장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사업도 다수 반영 △KTX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국비 10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37억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3년 연속 선정 △그린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 육성 산업화 지원센터(98억원) △에코프로 바이오터스 이용 활성화(19억원) 등이다.

이는 역세권 중심의 신성장 거점 조성, 친환경·미래산업 육성, 신기술 실증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남원시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울림목공예관 건립(152억원) △승원리 리모델링 사업(58억원) △만안공원 조성 사업(304억원) 등으로 전통문화와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미래 농업분야에서는 △청년농촌보급지리 조성사업(100억원) △농촌지도

기반 조성(31억원) △바이오가스 활용 미꾸라지 양식단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15억원) 등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친환경·스마트 농업 기반을 확충해 농촌의 소득 기반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복지, 교육, 정주여건 분야 △공공보건의료대학(632억원) △남원 유소년스포츠클럽 조성(490억원) △백평지구 중수해생활권 종합정비(366억원) △생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115억원) △도사비림길숲 조성사업(200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683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의료 인프라 확충과 재해 예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발판으로, 2027년도 국가예산 선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이미 두차례의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아울러 중앙청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남원의 중장기 발전과 미래 도약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을 적극 설명하고 반영시키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18일 구립면 운남리에 위치한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에서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상생 협력 방안 모색

순창군,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과 간담회 가저

순창군은 18일 구립면 운남리에 위치한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에서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순창군 관계 부서 공무원, 구립면 지역주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흥원 부설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 협력을 통해 방문객과 가족 단위 체험객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지역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개회 및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 조성사업 현황 소개, 지역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간담회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분원 시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날 간담회에는 2026년 3월 개원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부설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 협력을 통해 방문객과 가족 단위 체험객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지역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요 가족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로컬 체험 콘텐츠 발굴, 지역 관광과 연계한 체험 코스 개발 등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상생 모델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산타축제' 수험생 특별선물 등 이벤트 '풍성'

올해 첫 K팝 아이돌의 초청공연이 열리는 임실 산타축제가 올 한 해 고생한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군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임실지체장애마포에서 열리는 '2025 임실 산타축제' 기간 중 현장 이벤트로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전개한다. 이 기간 홍보담당관 부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홍보부



스를 찾아 수험표를 제시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다양한 성탄 선물로 구성된 특별선물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군은 이와 함께 교향사랑기부제와 SNS를 연계한 다채로운 참여 이벤

트를 마련하며 축제 분위기 확산에 나서고 있다. 축제 기간 축제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교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피자를 제공하는 특별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

온라인을 통한 참여형 이벤트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산타축제를 기념해 임실군청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산타축제 사행시 댓글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 드림스타트, 예비 중학생 학교생활 가이드 교육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3일 2026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남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중학생을 위한 중학교 생활 가이드' 교육을 시행했으며, 여학생은 오는 27일 교육과 책가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생활 가이드 교육으로 신체 발달에 따른 정결 및 생활 관리와 활동적인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자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책가방을 지원하는 등 새출발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날 프로그램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생활 가이드 교육으로 신체 발달에 따른 정결 및 생활 관리와 활동적인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자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책가방을 지원하는 등 새출발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라오스 기술통신부 방한단, 남원 SW미래채움 센터 방문

남원시가 라오스 기술통신부 방한단이 지난 17일 남원시의 SW미래채움전북센터 방문에 센터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와 신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 교류프로그램은 한국의 산업 디지털전환 전략과 지역 기반 기술사업화 및 인재양성 사례를 공유하고, 한-라 IT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라오스 IT 산업의 글

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 라오스 IT정책 입안자와 기업인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방한 연수 일정의 하나로, 방한단은 기술통신부 차관, 국장급 공무원 8명과 현지 IT기업인 8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방한단은 △AI·SW 기반 체험형 교육 콘텐츠 △디지털 인재 양성 사례



등을 둘러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체험 과정에서 방한단은 한국의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인프라와 신기술 적용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기술 구현 수준과 운영 방식에 대해 연신 질문을 이어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군 성과 평가 '우수'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군 성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3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임실군은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실현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여기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등 세 가지 주요 사업이 포함된다.

2025년 성과 평가는 사업 활성화, 사업 수행, 지역특화, 조직 운영, 보고서의 충실성 등 5개 영역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사회복지사협회 송년의 날 행사 열려

남원시 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하정두)는 18일,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는 한 해 동안 지역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사회복지자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 19명에게 기념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하정두 회장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무원직 직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교육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직 직원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강의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직접 맡아 시범사업의 취지와 비전, 재원 확보 계획, 향후 추진 전략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군수는 강연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순창군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공무직 직원 또한 군정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정책의 정확한 이해와 일관된 민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직 직원들이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군민 응대 시 보다 전문적인 설명과 안내가 가능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부서 간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군민 대상 교육 및 실무 적용 시 혼선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